

# 士林派 詩歌에 나타난 자연관과 서정

許南春\*

## 目次

1. 序
2. 僧家詩格
3. 僧家詩와 儒家詩의 비교
4. 士林派 詩歌의 자연관
5. 율곡의 문학론과 高山九曲歌
6. 結

### 1. 序

예전부터 시를 논하는 사람들은 조선조 초기의 문학을 官閣문학과 士林문학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그들이 처한 입지가 달랐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 문학의 언어성이나 서정적 지향도 다르게 마련이다. 본고는 道學者라고도 일컬어지는 16세기 사립파, 그 중에서도 퇴계와 율곡의 문학을 살피면서 그들이 철학적으로는 주자

---

\* 전임강사

학적 세계관에 충실하였지만 문학에서는 이념이나 사상보다는 서정성과 언어성에 충실했던 일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퇴계와 율곡이 주자학적 세계관을 견지하였기에 그들의 문학관도 載道論의 인범주에서 논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들 작품 속의 사상이 일반적인 형식을 빌어 표현되지 않고 생활 그 자체의 개성화한 형식으로 표현되었기에, 즉 사상이 개인의 구체적인 느낌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기에 그 사상은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 현상·작가의 정감 등과 융화한 것이며, 그 사상의 표면에는 서경의 색채와 잘 억제되고 조화된 서정과 생명이 넘쳐 흐르고 있다.

그러나 불교의 禪詩와 같은 이른바 哲理詩는 비록 사상이 시의 형식 속에 담겨 있을지라도 개성이 없기 때문에 시의 형상이 없으며 서정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차이를 확연히 제시하기 위해 같은 종교적·이념적·관념적 처지에 놓인 僧家와 儒家의 문학적 태도를 우선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같은 자연의 대상을 놓고 한편은 초월적 정신세계를 구가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은 자신의 세계관으로 독특한 서정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연관지어서 퇴계·율곡의 문학이 도학적 이념에 충실했다기보다 미학적 형상에 섬세한 노력을 보였으며, 현실을 외면하고 인간성을 부정했기 보다는 오히려 현실에 가까운 자연을 그리려 노력했다는 점도 밝히려 한다. 우리는 선입견으로 도학자 시가를 도덕적 당위성의 문학이라고 하지만 좀더 면밀한 고찰을 하게 되면 그들 문학에 담긴 독특한 서정의 존재양상을 살필 수 있으며, 그들이 추구했던 '지속적인 興趣와 醇正의 서정'의 미의식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2. 僧家詩格

佛家의 문학은 맑고 깨끗하며 깊이는 있지만 부드러운 파스함이 없고 매마르다고 한다. 즉 高談, 清雅, 幽致, 深遠한 특징이 나타난다. 이러한 승가의 문학적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서거정의 「桂庭集序」가 있다.

시는 뜻을 말한 것이니 뜻이란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그 시를 읽어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대개 臺閣의 시는 기상이 豪富하며, 草野의 시는 神氣가 清淡하고, 禪道의 시는 神氣가 枯乏하니 옛날의 시를 잘 보는 사람은 이

렇게 나누었다. …(승가의 시는) 峭古하고 淸瘦한 기운이 지나치고 優游中和의 기운이 없으므로 마침내 詩家들에게 선 찰떡과 같다는 나무람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그렇게 된 것인가. 나물과 죽순을 먹은 기운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1)</sup>

승려들이 나물과 죽순 같은 음식만 먹고 사니 그들이 지은 시들도 온화하거나 풍성한 느낌이 없고 메마르고 결핍되었다고 하여, 승려들의 시가 성하였다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성격에 대해서는 대개 인간적 정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평을 한다. 승려들은 자연을 관조하며, 궁핍하고 고요한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그들의 시가는 맑고 깨끗하면서도 철학적·종교적인 깊이를 갖고 있는 반면 非世俗의 내지 超世俗의이어서 거리감이 느껴지고 딱딱하며, 부드러움이나 따스함은 없다.

李廷龜의 碑文에 나타나는 休靜에 대한 평에서도 “自得之趣를 알게 하고도 남음이 있고, 우아하지 못하거나 부드럽지 못한 것이 있어도, 구절마다 날아 움직이는 것 같고 고색창연한 칼이 칼집에서 나오듯이 서늘한 바람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하여 인생의 허위를 날카롭게 집어내는 시각과, 생동감 있고 웅취한 표현이 두드러진다고 극구 찬양하지만, 역시 ‘우아함과 부드러움’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불가의 시는 구체적인 모습을 지칭하는 말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뜻하는 바는 워낙 개방되어 있어서 그 주제를 종잡을 수 없다. 참신한 시어, 뛰어난 시상, 적절한 말씨 등을 요구하는 것은 儒·佛 서로가 동일하지만, 불가의 경우 관조적이거나 탈속적이거나 기발한 상상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 서거정은 『東人詩話』에서 “옛 사람들은 불가의 말을 많이 써서 기묘한 기상을 나타내는 수가 많다.”<sup>2)</sup> 고 했다. 즉 불가의 시가 기이함을 자주 드러냈으나, 일상적이거나 典雅한

1) 峭古淸瘦之氣有餘 而無優游中和之氣 終未免詩家酸澁之譏 然是豈強爲而然哉 蔬筍之氣 不得不爾也 (徐居正, 『續東文選』 卷15, 「桂庭集序」)

2) 古人多用佛家語 以騁奇語

표현을 가까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悟道頌, 열반송 등의 불가시는 너무 탈속적이고 개방적이기에 일상적인 시상을 얻기에는 힘들다는 예가 된다.

서거정은 「桂庭集序」의 뒷부분에서 “표현이 뛰어나고 마음껏 뜻을 펴서 방외의 기운이 없다”<sup>3)</sup> 는 평을 인용하고 있다. 즉 桂庭의 시가 승려의 작품 중에서도 매우 뛰어났음을 논한다. 이는 한편으로 불가의 시가 ‘方外의 기운’을 자주 나타낸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趙東一님은 휴정의 「登香爐峰」을 인용하며 “방외인으로 씨의 소외감과 반발의식을 질게 나타내면서 엄청난 비약을 회구했다”<sup>4)</sup> 고 하였다. 桂庭의 시가 다른 승려들의 시보다 뛰어난 정신세계를 구가하였지만 平淡을 벗어나 있다고 하겠다.

### 3. 僧家詩와 儒家詩의 비교

가지가지 새짐승이 이리날아 저리오고  
 저리날아 이리오니 가며오며 우는소래  
 소리마당 설법이오 청풍이 소소하면  
 칠보행수 요동하고 은경댕경 나는소리  
 백천풍류 울리시고 들리는 소래마당  
 염불설법 뿐이로다 (僧元歌)

새 소리, 바람 소리, 풍경 소리는 모두 염불과 설법으로 들린다. 이처럼 불교시는 자연현상을 即物的으로 보지 않고 불법으로 귀착시킨다. 景閑은 「白雲和尚語錄」에서 꽃과 나무, 벌과 제비, 나비, 피꼬리 등 모든 자연물이 그대로 諸法の實相을 보여준다고 한다. 그의 자연관은 깨달음의 바탕 위에서 본체와 현상을一如의 경지로 파악하고 있다.

3) 飄飄俊逸 隨意放肆 無方外之氣

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1983, P. 436.

그런데 퇴계는 陶山雜詠記에서 “봄에는 산새가 즐거이 서로 울고, 여름에는 초목이 우거져 무성하며, 가을에는 바람과 서리가 차갑고, 겨울에는 눈과 달이 서로 영기어 빛나며, 사철의 경치가 서로 틀리니 흥취 또한 끝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여 자연현상을 서정의 흥으로 느끼고 있다.

春風에 花滿山하고 秋夜에 月滿臺라

四時佳興이 사름과 흥가지라

흥물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수 어니그지 이슬고 (陶山十二曲)

퇴계는 자연에 몰입하여 ‘賞自然’하며 의식의 평정을 찾고, 그 균형적, 평균적 사고를 바탕으로 ‘四時興’을 느꼈는데 이 흥은 ‘회노애락’의 감정이 평정된 상태인 듯하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흥취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회노애락의 조화와 평정상태를 얻었기 때문이고, 자연의 조화로움 속에서 흥과 樂을 갖지만 樂에 빠져 방일함을 낳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여 스스로 자기성찰을 촉구하게 된다. 이 각성의 촉구에서부터 존재의 근원 탐구가 이루어지고 창조정신을 가지려 함으로써 ‘詩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퇴계에 있어 도산 십이곡의 창작은 우선은 감정상태를 읊는 ‘서정의 흥’에서 출발하였겠고, 그 다음은 四時興의 정취가 방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성찰을 도모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화가 연속되고, 정치의 이상이 좌절됨에 따라 성리학의 현실적 정치적 기능은 약화되고 반대로 형이상학적, 관념론적 理氣論이 발전되었다고<sup>5)</sup> 하지만 존재의 근원 탐구 정신이 어찌 정치적인 이상의 좌절에서만 비롯되었겠는가. 세속의 여러가지 번잡함을 피해 자연에 몰입하여 의식의 평정을 찾으려는 마음은 시대적 특성을 뛰어 넘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5) 성호경, 「16세기 國語詩歌의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6, P. 12.

자연계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도 기쁘고 즐거울 때와 화나고 슬플 때가 교차되어 있다. 이러한 희노애락의 감정이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면 문제이다. 四時의 변화 속에서 인간은 춥고 더운 감정의 변화를 겪으며 추울 때는 따뜻함을, 더울 때는 서늘함을 추구했을 것이다. 겨울에는 겨울을 만족하지 못하고 여름에는 여름을 만족하지 못했으니 감정 또한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범부의 감정이다. 그러나 퇴계는 자연에 물입하여 봄·여름·가을·겨울의 흥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 그것은 희노애락의 감정이 조화를 이룬 상태와 다름이 아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四時佳興이 사름과 혼가지라”라고 노래했을 것이다.

四時의 조화를 느끼고 감정의 평정이 지속되면, 자연의 정연함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것은 자연이 자아내는 흥에 빠져 방일하게 되는 상황을 경계하는 각성이고 성찰이다. 이러한 성찰이 이루어지니 주체적 체험을 매개로 하여 자연과合一하게 되고,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스 어니 그지 잇슬고”라고 노래하게 된다. 이러한 ‘造化流行의 活潑’을 최진원님은 “자연의 理의 분명함을 깨달았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sup>6)</sup>고 하였다.

율곡도 ‘魚躍鳶飛’를 말한다. 「楓嶽贈小庵老僧」의 글에서 율곡이 한 승려에게 ‘鳶飛戾天 魚躍于淵’을 묻자 그는 이 시가 ‘非色非空’이고 곧 ‘眞如體’라고 대답한다. 율곡은 이에 대해 이미 말해진 것은 境界이고 본체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고기 뛰고 솔개 날아 아래 위가 한가지인데 / 이것은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닐세라”<sup>7)</sup>란 시를 승려에게 준다. 율곡은 불교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 魚躍鳶飛가 불교에서 말하는 非色非空의 경지와 일치함을 간파하고 그 깨달음이 서로 견줄 수 있는 것임을 논한다. 그러나 불가에서는 사물의 존재를 깨달음의 세계 즉 眞如體로 파악한다. 율곡은 있는 그대로 드러난 자연을 매개로 하여 인간의 合一을 기하는 데, 불승은 無媒介로 合一을 구한다.<sup>8)</sup>

6) 최진원, 『韓國古典詩歌의 形象性』,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88, P.29.

7) 魚躍鳶飛上下同 這般非色亦非空 (『栗谷全書』 卷一, 詩上)

8) 최진원, 위의 책, P.35.

퇴계와 율곡이 ‘魚躍鳶飛’를 자연을 매개로 한 흥으로 사유한 데 반해 노제 박인로는 확연히 다르다.

百尺澄潭에 天光雲影이 일희여 잠겨시니  
光風霽月이 부는듯 보듯  
鳶飛魚躍을 말 업슨 벗을 삼아  
沈潛 翫索하야 聖賢事業 하시덧다 (獨樂堂)

여기서의 사유는 因物起興이기보다는 ‘聖賢事業’의 이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入道次第로서, 흥을 매개하는 서정성이 결여되었음을 보게 된다.

율곡이 “속으로 내 마음 가운데의 가만이 찾아 봄이며, 밖으로 비약하는 것을 살피도다”<sup>9)</sup> 라고 한 대목을 보더라도 ‘있는 그대로 드러난 자연의 조화로운 세계’인 魚躍鳶飛가 서정적 趣興의 요체이며, 아울러 그의 存養省察에 큰 계기였음을 알 수 있다. 율곡이 ‘物我一體의 觀照’를 표방한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嗚呼라. 外物에 기쁨을 느끼는 것은 모두 眞樂이 아니다. 君子가 기뻐하는 것은 안에 있지 밖에 있지 않은 즉 그것의 속음이나 또는 흐름이 우리들에게 관련이 없다. 그런데 옛날 성현들이 이를 즐긴 까닭은 무엇인가. 대체로 內와 外를 분리하여 둘로 한다면 眞樂을 모른다. 반드시 內와 外를 하나로 하고 彼와 此를 없앤다면 眞樂을 아는 것이다. 천리는 본래 내외가 없는 것인데, 내외가 있게 된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온 것인 즉 진실로 人欲을 버린다면 浩然自得하게 된다. 그러니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sup>10)</sup>

彼와 此, 內와 外를 없앤다면 眞樂을 안다고 했다. 그런데 불가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고 애써 眞如體, 非色非空의 세계만을 그들 시의 대상으로 삼는다. 불가의 자연관은 깨달음의 바탕 위에 이루어지며, 자연까지도 인연 따라 모인 그림자에

9) 內潛求於方寸兮 外以察夫飛躍 (『栗谷全書』卷一, 理一分殊賦)

10) 『栗谷全書』卷三十三, 松崖記.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율곡에게는 ‘上的 나르는 것과 下的 뛰노는 것이 모두 다 밝게 드러남’은 人欲이 떠난 상태에서의 즐거움이고, 자연의 규범성과 調和이다.

불가의 시에서 자연은 극복·초월의 대상이다. 마음이 본성이라 할지라도 우선 불가에서는 그 마음조차 부정한다. 이 마음이 깨닫게 되면 이 마음도 법도 없다. 그것은 본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의지할 것도, 머무를 것도, 주관도 객관도 없다. 11) 禪師들이 생사의 문제를 깨치고 난 다음의 정신세계에서 노래한 시를, 우리는 그런 정신의 경지 없이 단지 일상적인 감수성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정신적 수준의 갖추어 예술적인 눈으로만 이 깨달음을 해석하고 있는 모순이다.

유가에서는 忘世와 無心을 경계한다. 그리고 불가의 ‘悟’를 배척하는데, 그 이유는 “悟는 日用處에 나아가 窮理하지 않”<sup>12)</sup> 기 때문이다. 불가에서는 無심이 어디까지나 無心 그것이지 어떤 외부적인 것과 결부되는 것은 없다. 유가는 삶의 이치를 궁구하는 데에 日用的 평이하고 명백한 곳에 나아감을 중시하였고, 자연을 완상하고 시를 짓는 때도 마찬가지였다.

詩經에서 비롯되고 中庸의 費隱章에서 ‘造化가 유행하는 자취를 따라서 上的 나르는 것과 下的 뛰노는 것이 모두 다 昭著함’을 밝힌 ‘魚躍鳶飛’의 句는 유가의 자연관을 이해하는데 무척 중요하게 부각된다. 이는 그들이 지향하는 자연의 규범성이며, 物我一體의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 ‘魚躍鳶飛’의 日用處에 나아갈 때 ‘忘世’ ‘無心’ ‘潔身亂淪’이 배척되고 사람과 자연은合一되는 경지를 경험하게 된다.

불가의 시는 문학적 정서를 바탕으로 해석되거나 감상되어서는 안 된다. 불가의 자연관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단 山寺의 풍경 등을 소재로 해서

---

11) 權奇浩, 「禪詩와 道家詩의 비교연구」(1), 『語文論集』 18호, 경북대 국문학과, 1984, P.89.

12) 최진원, 위의 책, P.34.

노래한 것은 불교적 소재의 시로 구분해서 禪詩와 달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無心을 표방한 道家나 頓超를 그린 佛家는 모두 本性(또는 道)이 만물에 내재해 있다고 한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이들은 유가의 눈에 高踏, 玄虛, 幽致의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玩世不恭하고 자연을 수양의 매개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도가와 불가에서는 아무런 자연의 리얼리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유가의 시가는 자연의 日用處에 나아가 궁리함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이념은 學朱子이고 그들의 자연에 대한 태도는 ‘實自然’이고 서정이다.

#### 4. 士林派 詩歌의 자연관

16세기 이전의 詞章派 문학은 기교주의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교주의는 후에 등장한 사립파에 의해 공격당한다. 퇴계는 자연을 노래하고 도를 밝히려 마음을 바로 잡는 데 시가 소중한 것이며, 따라서 시는 수식을 배격하고 幽閑한 경지를 나타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울곡은 그들 사장파의 기교주의를 반대하고 「精言妙選」이란 시선집에서 시의 품격을 논한다. 가장 높은 품격으로는 ‘冲澹蕭散’을 들고 있는데, 이는 ‘꾸미고 장식하지 않으나 자연스러운 가운데 품위를 갖춘 경지’를 말한다. 그 다음의 품격으로는 ‘閑美清適’이니 ‘조용하게 스스로 터득한 흥취에 깃드는 경지’를 들고 있다.

퇴계는 영남가단의 선두라 할 수 있는 이현보의 情緒와 주세붕의 教化를 함께 구현한다. 세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노니는 즐거움을 찾으면서도 玩世不恭에 빠지지 않고 온유돈후한 경지를 살려 江湖歌道가 내실을 거둘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퇴계는 자연과의 화합을 중요시하면서 고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연이야말로 ‘본연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자연 속에서 소요하는 즐거움을 ‘심흥을 활짝 열어 주고 정신을 말끔히 씻어 주는, 性情을 기르는 한가지 일이 된다’ (『李子粹語』)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자연의 性を 본연의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연을 수양의 매개로 선택하였고, 그 본연의 性を 통하여 存養省察

하는 자세를 멀리하지 않았다.

울곡은 幽閑한 것을 즐기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갖추고 있는 예사로운 마음이라고 했다.<sup>13)</sup> 그러나 자연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통해서 道體를 알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는 高山의 勝景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高山九曲歌를 지었는데, 忘世를 경계하며 “사름이 勝地를 모로니 알게 혼돌 엇더 흥리” (二曲)라 하여, 자연을 즐기고 사랑하는 예사로운 마음을 산 속에서 고립시키지도 않았고 그 자신도 隱遁에 빠지지 않았다.

도학자 입장에서 본 자연은 어떠한 것인가. 道學으로서의 성리학의 목적은 善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함에 있다. 「大學」에서 도는 ‘在止於至善’이라 하여 至善에 도달하는 것을 修己와 治人의 목표로 삼고 있다. 퇴계에게 있어 至善이란 까다롭고 어려운 데서 구할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데서 구해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그때그때에 알맞는 輕重, 長短, 大小의 법칙이라고 하였다. 사물 처리에 있어 이 중도적인 至善을 事物當然之處라고 한다. 이 所當然之理(실현해야 할 理)와 所以然之理(이미 실현된 理)와는 다른 것이다.<sup>14)</sup> 이 所當然之理를 지향하여 그것을 실현화하려고 노력하는 데서 윤리·도덕의 존재 가능 근거를 찾게 되는데 그 이치를 자연에서부터 배우고 얻는다는 것이다. 즉 退溪에 있어 자신의 생활 공간인 陶山의 ‘산수(日用處)에 나아가 시적 감동을 통하여 理를 궁구’<sup>15)</sup> 한 것이 陶山十二曲이다.

조선 전기 사대부 시조에 나타나는 이러한 자연미에 대해 조동일님은 “천하의 사물을 자아화하여 物我一致, 天人合一에 도달하려는 것은 철학적 탐구의 목표이

---

13) 樂幽閑而愛泉石 通人素心 (『栗谷全書』卷一, 「贈金景嚴詩并序」)

1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李相殷, 「價値의 實踐으로 본 退溪의 敬思想」,

PP. 154-158에서 볼 수 있다.

15) 최진원, 위의 책, P. 35.

고 도덕적 수양의 목표이며 또한 서정시 창작의 목표<sup>16)</sup> 라고 하였다. 자연은 '純善'이기 때문에 存養省察을 위한 매개로 등장하며 동시에 자연의 규범성은 도학자 시가의 지향이 되었다. 퇴계는 노래부르는 도구로 시조를 선택하였다. 이 노래는 도학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흥취를 체득하는 중요한 구실을 담당하였다.

여기서 조선조 전기의 시조 들을 예로 들어 이 시조의 주제적 지향이 퇴계·율곡과 어떻게 다른가를 우선 살펴보겠다.

(가) 지아비 밧갈나 간디 밥고리 이고가

飯床을 들오디 눈섭의 마초이다

眞實노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두루실가 (五倫歌 4)

(나) 綠水青山 김푼골에 靑藜緩步 드러가니

天峰에 白雲이요 萬壑에 烟霧 |로다

이곳이 景概도흐니 예와 놀러 흥노라 (李明漢, 『시조문학사전』 485)

(가)의 시조는 중국의 고사를 들어 정숙한 아내의 남편 섬기는 도리를 말한 것이다. 이는 도덕적 관념을 시로 재편하려는 시인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도학을 전달하는 기능만 있을 뿐 興이 배제되어 있다. 이것이 도학자 시가에서 경계하는 일면이다. (나)에서는 자연이 단순하게 玩賞의 대상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대구법이 주는 평범이 드러나 拙한 미의식에 젖어 든다. 한시의 미의식은 대구법에서 비롯되는데, 이 시조도 초·중장이 대구를 이루며 그런 대로의 자연미가 平淡하게 드러 난다. 그러나 초·중장의 표현이 관용구에 머무르고 중장은 앞의 시상과 무관하게 호기가 드러나 기위 불인 느낌을 준다. 그윽한 자연의

16) 조동일, 「시조의 이론, 그 가능성과 방향설정」, 『韓國學報』 1집, 일지사, 1975 겨울, P. 184.

정취에 감동을 일으킨 시상이기보다는 놀이에 탐닉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자연에서 비롯되는 흥이 반감된다고 하겠다. 이처럼 가벼운 흥을 경계하는 것이 사대부의 미적 취향이 아닐까 한다. 자연을 매개로 하여 심성을 도야하고 지속적인 흥을 가지려 하면서도 도덕적 관념이나 가벼운 흥을 거부한 것이 퇴계·율곡의 시조이다.

(가) 天雲臺 도라드니 玩樂齋 瀟灑호되

萬卷生涯로 樂事 | 無窮호여라

이 中에 往來風流로 일너 무슴 호리오 (陶山十二曲 7)

(나) 四曲은 어디메오 松巖에 희념는다

潭心巖影은 온갓 빛치 좀겨세라

林泉이 깊도록 도흐니 興을 계워 호노라 (高山九曲歌 4)

(가)에서는 독서의 즐거움을 통해 심성을 기르는 무한한 즐거움이 있고, 자연에 잘 어우러진 맑고 깨끗한 삶의 처소를 한가하게 거니는 賞自然의 풍류가 나타난다. (나)에서는 林泉의 골짜기로 들어 갈수록 勝景을 발견하게 되어 좋다고 하며 그 자연의 興을 노래하고 있다. 못에 담긴 바위의 그림자가 온갓 빛을 발한다. 여기서 자연의 무궁함을 찾을 수 있고, 그 무궁한 즐거움이 담긴 자연 속에서 ‘도의를 기뻐하는’ 시적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陶山十二曲의 “樂事 | 無窮호여라”하는 심경과 잘 대비되는 노래이다.

율곡은 “시는 性情에 근본하는 것이니 억지로 꾸며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聲音의 높고 낮음도 자연에서 나온다”<sup>17)</sup> 라고 하여 시가 인위적인 기교에서 벗어나서 자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고, 퇴계는 자연과의 화합을 중요시하면서 고

17) 詩本性情 非矯偽而成 聲音高下出於自然 (『栗谷全書』 卷十三, 「精言妙選序」)

고한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자연이야말로 본연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겼다.

## 5. 율곡의 문학과 高山九曲歌

시는 성정에 근본하는 것이니 억지고 꾸며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聲音의 높고 낮음도 자연에서 나온다. 詩經 三百篇은 人情에 曲盡하고 사물의 이치를 두루 통했으며 優柔忠厚하여 그 大要是 正으로 귀결된다. 이것이 시의 本源이다.<sup>18)</sup>

율곡은 시의 본질을 ‘성정의 바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고 시의 효용으로 ‘심성의 도야’를 지적했다.<sup>19)</sup> 자연을 매개로 하여 심성을 도야하고자 했고, 서정에 규범화함으로써 서정에 성정의 바름을 기하려고 했다. 도학자 시가의 ‘본질’ ‘품격’은 그들 시가의 주제와 상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載道的 시각에서 문학을 주자학의 종속적 도구로 생각한 것은 아니다. 장원철은 “시가 인위적인 기교에서 벗어나서 자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은 문학의 존재양상에 주목하는 것이고, 그러한 시가 인정에 曲盡하고 사물의 이치를 두루 통해야 한다는 것은 문학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당위의 문제인 것이다”<sup>20)</sup>라 하여 율곡의 二元論의 主氣論의 입장에 주목하여 문학이 무엇이나 하는 존재론적 물음과 문학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당위론적 물음을 나누어 놓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철학적 입장이 바로 그들의 문학관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문학 작품의 해석을 철학적 입장만을 토대로 한다는 것은 오류일 것이다. 율곡이 “도가 드러난 것을 文이라고 한다”<sup>21)</sup>에서의 文은 理를 주로 하는 것이므로 언어성을 위주로 하는 詩와 변별해서 받아 들여야 한다.

18) 「精言妙選序」, P. 269.

19) 임형택, 「16세기 사림파의 문학의식」,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84, P. 45.

20) 장원철, 「조선 후기 문학사상의 전개와 천기론」,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PP. 14-15.

21) 道之顯者 謂之文 (『栗谷全書』 拾遺4, 「文武策」)

栗谷은 高山九曲歌를 지어 武夷權歌에 比擬했으며, 武夷權歌의 시상을 재현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武夷權歌를 入道次第의 이념으로 보느냐 因物起興의 서정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조선조 이래로 논란이 되어, 士林派 문학을 연구하는 현재의 학자들에게까지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여러 논자들이 지적하였듯이 무이도가는 因物起興이라는 서정의 세계이며, 高山九曲歌도 마찬가지이다.<sup>22)</sup>

고산구곡가에는 개성적 형상이 두드러지며, 관념적인 道學이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그 대신 감정이 너무 절제되어 있다 보니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서정시일까 라는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조가 교술적 이념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고 있으면서도 조선조 특유의 서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그 형상성에서 발견하게 된다. 작품 속의 사상이 일반적 형식을 빌어 표현되지 않고 생활 그 자체의 개성화한 형식으로 표현되었을 경우에는, 즉 사상이 개인의 구체적인 느낌을 통하여 나타났을 때에는 그 사상은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 현상·작가의 정감 등과 융화한 것이며, 그 사상의 이면에는 색채와 생명이 넘쳐 흐르고 있다. 불교의 선시와 같은 哲理詩는 사상이 형식 속에 담겨 있더라도 개성이 없기 때문에 시의 형상이 없으며 참된 시라고 부를 수 없다. 시적 형상과 개성은 구분될 수 없는 것이다.<sup>23)</sup>

22) 최진원 교수는 “退溪와 高峰은 관념적 해석에 매몰된 무이도가를 興趣의 세계로 끌어올렸다. 入道次第라는 공리의 구렁텅이에 빠진 무이도가를 因物起興이라는 서정의 본연으로 돌이킨 것이다” (『한국고전시가의 형상성』, P.56)이라 했고, 이민홍 교수는 “중국에서는 무이도가를 朱子學이나 주자의 문학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경향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武夷九曲의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깃들인 도교적 전설을 담은 서정시로 파악한 것이다” (『士林派文學의 研究』, 형설출판사, 1987, P.135)라 했으며, 더욱 자세한 논문으로 김병국의 「高山九曲歌 研究」(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1991, PP.71-75)가 있다.

23) 蔣孔陽, 金一平 譯, 『形象과 典型』, 사계절, 1987, P.13.

한편 율곡을 위시한 사림파의 문학이 현실과 인간을 멀리한 것으로 ‘현실주의에 대한 반대이며 인간성에 대한 부정’<sup>24)</sup>이라는 한계가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율곡은 隱遁과 忘世를 부정하였고 퇴계와 마찬가지로 日用處에 나아가 시적 감동을 추구하였다. 조동일 교수는 “詩가 人情에 曲盡하고 물리를 넓게 통달해야 한다는 데서는 나아가 세상과 부딪치는 시를 요구했다”<sup>25)</sup>고 하였다. 후대 실학에 의한 문학사상이 전개되면서 정약용이 주장한 바에는 미치지 못하여, 문학이 載道之器란 개념으로 포괄되기는 했지만, 현실에 가까운 시의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즉 栗谷은 隱逸을 구하지 않고, 자연을 매개로 하여 人情에 曲盡한 내용을 현실 속에서 담으려 노력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다.

林泉이 김도록 丘호니 興을 계워 ㅎ노라 (四曲)

寒巖에 혼자 안자서 집을 잇고 잇노라 (七曲)

古調를 알리 업스니 혼자 즐겨 ㅎ노라 (八曲)

여기서는 ‘조용하게 自得하고 寓興에서 나오며, 사색해서 이를 수 없는 경지’를 노래하고 있다. 四曲에서는 현실에서 멀리 한 경계, 七·八曲에서는 초연한 자세를 취하는 경지가 옮겨진 듯하다. 하지만

사름이 勝地를 모로니 알게 혼돌 엇더리 (二曲)

遊人은 오디 아니ㅎ고 붙것 업다 ㅎ더라 (九曲)

에서 처럼 사람들이 이 좋은 경치에 와서 벗어나면 좋겠다 하는 심정 (二曲)과 자연의 흥취를 무심하게 지나치고 만 세인들을 아쉬워하며 자신이 즐기는 경치의

24) 임형택, 「16세기 사림파의 문학의식」, P. 50.

25) 조동일, 「韓國文學思想史試論」, 지식산업사, 1978, P. 164.

감희(九曲)를 담백하게 노래하고 그 희음을 즐기고 있다. 이로 보아 高山九曲歌는 현실을 멀리 한 경계나 초연한 자세를 취하는 경지와는 그 격조가 다르다. 고산구곡가의 자연은 현실에서 가까운 자연이고 담담한 가운데 즐기는 자연이다.

조선조 사립파의 시가는 道學的인 것보다는 미학적인 것이었다. 율곡은 인위적인 기교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매개하여 吟詠抒情하였다. 즉 이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서정을 택하고 서정에 의해 매개됨으로써 지속적인 흥을 갖게 되고 醇正의 서정을 추구하였다. 이 서정의 핵심적 지향은 꾸미고 장식하지 않으며, 지나친 감정이입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 (가) 꾸미고 장식하는 것에 힘쓰지 않고 자연스러운 데서 妙趣·古調·古意가 깊이 들어 있다……담박을 맛볼 수 있고 희음을 즐길 수 있다.  
(不事繪飾 自然之中 深有妙趣古調古意……味其淡泊 樂其希音)

- (나) 아름다운 곡식은 들피를 아름답다고 용납하지 않나니  
가는 티끌조차 오히려 새로 닦은 거울을 더럽히는구나  
지나친 정을 나타내는 말은 모름지기 깎아버리고  
참된 공부에 노력하여 각 일마다 친숙하게 되기를.<sup>26)</sup>

(가)는 율곡 자신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冲澹瀟散’에 대한 설명이다. 꾸미고 장식하지 않으나 자연스러운 가운데 품위를 갖춘 경지이다. 가장 훌륭한 詩品은 또한 古調와 古意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옛 노래의 흥취를 재발견할 일이다. 高山九曲歌 八曲의 “古調를 알리 업스니 혼자 즐겨 후노라”에서도 드러나는 ‘古調’는 옛 흥취에 대한 향수요 애정이다. 여기에 진한 서정적 동경이 담겨 있다. (나)는 율곡에게 詩學의 요체를 설명하는 퇴계의 시로, 그의 문학관이

26) 王翬, 李章佑 譯, 『退溪詩學』, 퇴계연구소, 1981, P. 16.

잘 담겨 있다고 하겠다. 퇴계도 수식을 배격하고 지난친 감정의 이입을 경계하고 있다.

율곡은 정을 옮겨 마음을 방탕하게 하는 것(移情蕩心)을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sup>27)</sup> 시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면 마음 속의 찌꺼기만 두텁게 하는 것이다. 율곡의 高山九曲歌에는 자연스러운 데서 묘취를 찾고, 古調의 옛 흥취를 향수하며, 지난친 감정을 억제하는 淡泊한 미의식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때 율곡의 高山九曲歌는 충담소산의 格調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율곡은 문학이 ‘기교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나와야 한다’는 문학의 존재양상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겠다.

## 6. 結

조선조의 사대부 문학을 논하는 데 있어서 주자학적 세계관에 침잠하다 보면 이념적 편견에 빠지는 것이 사실이다. 「오륜가」 「도덕가」 등의 관념시들이 존재하며, “誠意 正心호야 修誠을 넘게 하면 言中行篤호야 사롭마다 어질드다” (「獨樂堂」)라 하여 교술적인 면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詩歌도 있다. 하지만 퇴계·율곡의 시가는 그것들과 格을 달리 한다.

본고는 사립과 시가의 서정과 興趣를 명백히 밝히고자 儒家詩格과의 대비를 우선 시도하였다. 儒家詩는 맑고 깨끗하나, 부드러움이나 우아함은 없으며 너무 탈속적이고 개방적이기에 일상적 시상을 얻기 힘들다. 그러나 儒家詩는 초월적 정신 세계를 탈피하여 자연의 흥과 아름다움을 제시하고 있다. 사상이 개인의 구체적인 느낌을 통하여 나타났을 경우 그 사상은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高山九曲歌의 ‘學朱子’는 주자의 자연 은거생활(武夷山)과 武夷權歌의 시세계를 배워 좇으려 했음을 의미하며, 율곡은 주자의 무이도가에 담겨 있는 興趣와 賞自然의 抒情을 받아들여 했음을 볼 때, 사립과 시가를 이념의 시각에서만 파

---

27) 豈爲雕繪 繡藻移情蕩心而設哉(「精言妙選序」)

악해서는 안 될 것이다.

퇴계는 賞自然을 통해 四時興이 인생과 한가지임을 깨닫게 되는데, 자연의 조화로움을 느끼게 되면서 의식과 감정의 평정을 얻는다. 자연의 조화에서 흥을 갖게 되고 그 즐거움이 방일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 성찰을 촉구하게 된다. 이 각성의 촉구에서부터 존재의 근원 탐구가 이루어지고 창조정신을 가지려 함으로써 詩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陶山十二曲은 서정의 흥에서 비롯되었고, 이 흥이 방일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규범성을 더하였다.

율곡은 人情에 曲盡함을 시의 本源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賞自然의 흥취를 조용히 自得하고 홀로 즐기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경치에 와서 벗했으면 좋겠다고 하며 자연을 인간 세상과 격절시키지 않고 있다. 高山九曲歌의 자연은 현실에 가까운 것이고 의식의 평정 상태를 지속시켜 주는 매개물이다. 또한 율곡은 인위적인 기교를 부정하고 자연을 매개하여 지속적인 흥을 얻으려 한다. 즉 수식을 배격하고 지나친 감정의 이입(形似抑制)을 경계하고 있다. 形似抑制은 '리얼리티 표현의 결여-個別性的의 결여'<sup>28)</sup>인데 그렇다고 일반의 형식을 통하여 일반법칙을 인식하고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高山九曲歌의 내면 형식은 개별을 통해 일반을 반영하며 일반은 개별 속에 포함되어 있고, 사유는 개별의 형식에 따라 일반법칙을 인식하고 반영한다고 하겠다. 자연 일반을 인식하고 반영하지만 꽃 일반·나무 일반의 개념은 모두 생동하는 형상으로 바뀌어 있다. 그러므로 高山九曲歌를 비롯한 士林派 시가를 사상성이나 개념 형식으로 파악하던 종래의 방법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 생활의 취향과 형상성에 주목하여 고찰해야 할 것이다.

---

28) 최진원, 『國文學과 自然』, 성균관대 출판부, 1977, P.78.